

환율 하락에 달러 예금 '사상 최대'

한은, 달러화 예금 557.4억 달러 · 전월比 57.4억 달러 ↑ ... "기업은 환전 미루고 개인은 달러 사들여"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달러화 예금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이 1100원선 밑으로 떨어지는 등 '원화강세'가 심화되면서 달러화 자산에 투자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7월 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외화예금 잔액은 662억3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66억2000만달러 증가했다.

이는 달러화예금이 큰 폭으로 늘어 역대 최대 잔액을 기록한 데다, 지난 달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여파로 사상 최대 감소폭을 보였던 유로화예금이 2008년 12월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한 영향이다.

이로써 거주자 외화예금은 지난 5월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뒤 두달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 등이 보유한 국내 외화예금을 뜻한다.

통화별로는 달러화예금 잔액이 57억4000만 달러 늘어난 557억4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잔액을 기록했다. 한은에 따르면 달러화예금은 기업의 무역결제대금 예치 등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개인 달러화예금은 10억9000만 달러 늘여 역대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다.

시장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환율이 연말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기업들은 원화환전을 미루고 달러를 쌓아두고 있고 저금리 속에서



기가 IoT 홈 프리미엄팩 출시 KT는 삼성SDS와 함께 홈IoT 토털 케어 서비스 'GIGA IoT 홈 프리미엄팩'을 출시했다. 이밖에 출시된 'GIGA IoT 홈 프리미엄팩'은 아파트 단지나 다세대/빌라/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 사용할 수 있다.

투자처를 찾지 못한 개인들은 좀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달러화에 투자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1.1원 떨어진 1092.2원을 기록하며 1년 3개월여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월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16일(현지시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하반기 경기회복세 가속화로 정책 금리가 9월 중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고 밝혀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설이 다시 시장에 확산되고 있다.

유로화예금은 브렉시트 우려 완화 등의 영향으로 5억4000만 달러 증가한 32억7000만 달러를 나타냈다.

한은은 "대기업의 무역결제 대금 예치 및 기관투자자의 유로화 자산 투자확대 등으로 2008년 12월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위안화예금은 전월 대비 1억 달러 늘어난 19억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지난 2014년 10월 217

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금리 차이 등에 따른 차익거래 유인이 사라지면서 10억 달러대까지 규모가 줄었다.

이밖에 엔화예금은 전월 대비 1억2000만 달러 증가한 37억2000만 달러, 영국 파운드 및 호주달러 등 기타 통화예금은 1억2000만 달러 늘어난 15억1000만 달러를 나타냈다.

주체별로는 기업예금은 54억7000만 달러 늘어난 567억6000만 달러, 개인예금은 11억5000만 달러 늘어난 9억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뉴시스

'기금 월세대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우대형 연금리 1.5% · 일반형 2.5%로 매월 30만원 대출

앞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도 '월세대출'을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오는 22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준전세와 준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매월 30만원씩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정부는 취업준비생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일부 대상만 이용할 수 있었던 기금 월세대출을 연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우대형으로 연금리 1.5%로 지원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면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일반형으로 연금리 2.5%로 지

원한다. 이용 기간은 기존 6년에서 가장 10년까지 늘어난다. 최초 2년 이후 2년 단위로 4회 연장할 수 있다.

기금 취급은행도 기존 1곳에서 6곳으로 확대된다.

월세대출이 가능한 주택 유형은 공부상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시설만 가능하다. 무허가건물이나 등기부등본상 불법건축물로 등재된 주택 또는 고시원은 대출이 안 된다.

전용면적은 85㎡이하만 가능하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월세보증금은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

월세금 대출 보증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월세금 30만원 기준 보증료는 480원, 연 월세금 평균 대출잔액 360만원 기준 보증료는 5832원 수준이다. /뉴시스

금융당국, 분식회계 근절 나섰다

회계제도 개혁 TF 첫 회의

금융위원회는 분식회계 근절과 적극적인 감사 환경 조성을 위해 '회계제도 개혁 특별(TF)팀'을 구성하고 서울 정부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TF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당국), 한국상장회사협의회(기업), 한국공인회계사회(감사인), 회계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전문가들은 핵심감사제(KAM) 도입과 함께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등 해외사례를 감안한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계는 경영진 인식 제고와 교육 강화, 내부감사 및 회계관리 강화를

연습하면서 과도한 감사부담 증가에 대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요구했다. 한공회 측은 감사인 선임제도 개선, 소신있는 감사환경 조성, 감사보고서 내용 충실화, 감사보수 현실화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 격주 단위로 TF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문제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10월 실정적 개혁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와 심포지엄 등으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뉴시스

흡소핑사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중징계도

비율 높으면 녹화방송 전환...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유리한 내용 우선 적용

보험상품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흡소핑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업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흡소핑사는 사전심의를 받는 녹화방송으로 전환해 상품을 팔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흡소핑사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근절방안 마련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흡소핑 채널은 허위과장광고가 지속되고 불충분한 상품 설명이 빈번해 소비자의 불만이 크다.

실제 지난해 흡소핑 채널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0.78%로 보험업계 평균인 0.40%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광고심의 기준과 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우선 보험업계 평균 수준으로 불완전판매비율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미달한 흡소핑사의 판매광고를 녹화방송으로 전환한다.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은 제휴회사 판매광고를 녹화방송으로 전환하고, 개선되지 않은 업체는 전체 판매광고를 녹화방송으로 돌릴 계획이다.

다만 시간이 필요한 만큼 목표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0.7%에서 2020년까지 업계 평균인 0.4%로 올린다는 구상이다.

제재 수위도 높인다. 보험협회의 흡소핑채널에 대한 제재 기준은 경미한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에도 제재금 부과 가능하도록 기준을 고쳤다.

특히 금융당국은 보험사 또는 흡소핑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다수의 피해 발생할 때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회사 및 임직원을 엄중 제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불완전판매가 적발되면 앞으로는 과태료 수준을 높이는 한편 업무정지와 등록 취소 등도 열어두고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만약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해 제재를 받으면 해당 내역을 보험상품 판매광고 전에 안내방송으로 알리고 협회 홈페이지에도 공시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도 손질한다. 광고내용과 보험 상품내용이 상이한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분쟁 조정 원칙을 확립했다.

또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시 광고를 중단하고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는 리콜(기납입보험료 등 환급)을 신속히 실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흡소핑사 자체 내부통제 방안도 마련했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